



## 한국 수어노래의 예술적, 언어적 특징 분석

남기현\* · 조준모\*\*

### An Analysis of the Artistic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Sign Songs in Korean Sign Language

Nam, Ki-Hyun\* · Cho, Jun-Mo\*\*

#### ABSTRACT

**[Purpose]** Sign languages, as is the case with spoken languages, make use of their special properties when they are used for the creative art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artistic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embedded in sign songs in Korean Sign Language. **[Method]** In order to verify that different types of sign songs exist and that they bear different linguistic features, we compared three translated sign songs that can be identified as belonging to one of two types, according to their authors and motivation. The first type includes a sign song translated by a committee of both hearing and Deaf people with the special purpose of standardizing the Korean National Anthem so that it can be sung together with hearing people. The other type includes two sign songs composed by Deaf authors, without any special intention other than their motivation to create art. The three songs were annotated according to ELAN (EUDICO Linguistic Annotator) for comprehensive analyses.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triking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sign songs. First, the latter type was far less faithful to acoustic music than the first. Instead, it displayed higher dependency on its internal language rhythm. Second, the latter type displayed greater faithfulness to the use of sign language as a natural language for the sake of clear communication with the Deaf community. Third, the latter type used the sign space far more creatively, especially when marking contrasts metaphorically. Fourth, the creative use of sign language morphology and lexicon, such as spreading, was far more frequently found in the latter type. Lastly, metaphor, metonymy, and other poetic usages of the language were found in the latter type but not in the former. **[Conclusion]** These results support the notion that sign songs are not merely a translated version of acoustic music. Rather, sign songs demonstrate that music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acoustic realities. This means that, together with other creative art forms expressed through sign language, sign songs created by Deaf authors for the purposes of the creative ar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Deaf identity. Furthermore,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Deaf schools with music curricula that recognize and promote a musical experience that is uniquely Deaf.

**Key Words** : sign songs, non-acoustic music, linguistic features of art, Deaf identity, Korean Sign Language

\* 제 1저자,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수어통역교육전공 조교수(classifier@kornu.ac.kr)  
Professor, Major i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 교신저자,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부교수(junmocho@handong.edu)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Languages and Literature, Handong Global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는 예술적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인간의 예술 창작 행위에 언어가 사용될 때 기존 소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시에서 발견되는 압운(rhyme)과 율격(meter)과 같은 운율 체계 등의 시적 장치(poetic devices)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가 예술 창작에 활용될 때에도 독특한 언어적 특징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Sutton-Spence와 Quadros(2005)에 의하면 수어시(sign poetry)에는 반복(repetition), 대칭(symmetry), 신조어(neologism), 혼성어(blending)와 같은 언어적 특징들이 존재한다. 반복은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기호 등의 반복적 활용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압운이 표현된다. 대칭은 한손 수어 어휘를 양손으로 동시에 구사하는 양손사용(doubling)과 우세손의 교차적 활용(dominance reversal) 등을 총칭하는데 이러한 대칭을 통하여 시적 조화가 표현된다. 신조어는 생산적 어휘(productive signs)를 의미하며 혼성어는 두 개의 수어 어휘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Crasborn(2006)은 수어시에 양손사용(doubling), 유지(spreading), 그리고 완전 동시성(full simultaneity)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보다 월등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세손이 새로운 어휘 발화를 위하여 변화할 때 비우세손이 기존 어휘 형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유지’라고 하며 ‘완전 동시성’은 서로 다른 어휘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발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Sutton-Spence와 Quadros(2005)에 따르면 수어시(sign language poetry)는 농사회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수어시 창작과 같은 수어의 예술 창작 활동은 농인들의 시각적 정체성(visual identity)을 극적으로 강조하며 나아가 농사회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증진시킨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수어시와 대조적으로 수어노래(sign songs)는 수어문학 전통에서 다소 소외되어왔으며 학술 문헌에서도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다. 수어노래의 다양한 유형을 관찰하지 않았을 때 수어노래를 청인의 음악을 수어로 번역한 소위 ‘번역된 노래(translated songs)’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전제하에 농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수어노래를 농인과 청인 세계의 상호작용의 부산물로만 여긴다. 그들은 수어노래를 청인 문화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농사회로 수용하지 않는다. 일부 청인들 또한 수어로 만들어지고 수행되는 노래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음악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Bahn, 2006).

일본도 수어문학은 음성언어 작품을 수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며 농인들의 생활 속

에서 태어난 것이라야 한다고 그 범위를 분명히 한다(요나이야마 외, 2002). 기무라 하루미는 칼럼 「수화노래에 대한 생각」에서 수어노래는 청인들의 전유물이며 농문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요나이야마 외, 2002). 국내에서도 수어문학을 정의할 때 청각적 요소의 개입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농문화로서의 농인 예술의 전형’은 청각적 요소가 필요 없는 수어 콘트, 수어 연극 등이며, 수어 뮤지컬과 같이 농인의 내러티브가 녹아든 장르도 청인의 문화인 음악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농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김유미 외, 2019).

수어노래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청각 중심의 음악관에 근거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이야말로 농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여긴다. 그러나 농인의 음악행위는 청각적인 실체를 시각적인 실체로 번역하는 데 제한되지 않는다. 농인들은 그들의 시각적 행위 가운데 음악을 창조한다. 수어를 사용하여 청각적 음악을 표현하기보다 수어 언어행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Mahler(2015)는 음악의 개념이 청각적 경험을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 음악은 청각적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농(deafness)은 고유하며 독립적인 음악적 표현을 가능케 한다. 그러한 농 고유의 음악적 표현은 ‘정상적인’ 청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 청인들에게 생소한 음악적 세계를 농인들은 공유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인의 음악행위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짐으로 보기보다 일종의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Garland-Thomason(2012)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Bahan(2006)은 수어노래를 ‘번역된 노래(translated songs)’와 ‘리듬 노래(percussion songs)’로 구분한다. 번역된 노래는 노래 가사를 미국수어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것이고 리듬 노래는 리듬감 있는 패턴으로 수어를 배열하는 것이다. 최근 라이브 공연과 녹화로 제시되는 수어노래는 위 두 범주로만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으며 공연자의 유형, 공연의 의도, 공연을 소비하는 관중의 커뮤니티가 각 범주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이 제기되었다(Mahler, 2015).

음악행위의 관점에서 수어노래를 바라본 Mahler(2015)는 수어노래 공연을 라이브 공연과 녹화공연으로 나누고, 라이브공연과 녹화공연을 각각 두 종류로 세분화한다. 라이브공연 중 하나인 번역 서비스(live music interpretation services)는 기존의 청각 음악을 수어로 번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주로 청인들이 감당한다. 다른 종류의 라이브공연은 창작곡 혹은 기존 곡을 공연하는 예술행위(artist performance)이며 주로 농인에 의하여 농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녹화공연(videos)도 두 종류로 세분화 되는데 하나는 창작곡(original songs) 공연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곡(preexisting songs) 공연이다. 창작곡 공연은 주로 농인에 의하여, 기존 곡 공연은 주로 청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어노래는 청인과 농인이 함께 공유하는 음악행위이다. 그러나, 그 중 예술행위로서의 라이브공연과 창작곡 녹화공연은 주로 농

인에 의하여 농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수어노래의 모든 가능한 예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현대 수어노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유형들을 포함한 것이다. Mahler(2015)는 청인과 농인에 의하여 수어노래로 번역된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이점은 자연수어 사용 정도에 있다. 농인들은 음성언어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인위적 언어 사용을 피하며 자연수어를 충실히 사용한다. 그에 비해 청인은 자연수어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들은 심지어 수어 어순이나 적절한 수어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수어와 전혀 상관없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차이는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에서 발견된다. 청인의 번역 작품은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반면 농인의 작품은 그러한 충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인다. 예를 들어, 청인은 음가와 같은 청각 음악의 특징을 수어공간을 통하여 충실히 표현하지만 농인은 청각 음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농인의 번역 작품은 오히려 선(線)을 통하여 음악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가사에 표현된 인물들을 수어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세 번째 차이점은 리듬과 관련되어 있다. 청인은 청각 음악의 리듬을 진동(pulsing)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이는 맥박이 뛰는 것처럼 수어자의 몸이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진동은 주로 가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며 수어 어휘 발화에 형태적 변화를 주기도 한다. 대조적으로 농인은 청각 음악의 리듬 표현보다 수어에 내재된 언어적 은율(prosody) 표현에 더 충실하다.

본고는 농인들과 청인들의 번역 작품인 한국 수어노래(Korean Sign Songs)의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대조 분석의 목적은 수어노래의 다양한 형태 중 수어의 고유한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충실히 드러내는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며 그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런 형태의 작품은 농사회의 정체성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며 나아가 농인들의 문학·예술 교육의 방향 설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세 곡의 번역된 한국 수어노래의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수어노래의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수어노래의 한국수어에의 충실성은 어떠한가?

셋째, 한국 수어노래의 수어공간, 유지, 단어 변형 사용은 어떠한가?

넷째, 한국 수어노래의 비유적 언어 사용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세 곡의 수어노래는 기존 한국어 노래를 수어로 번역한 유형이다. <Table 1>은 이 세 곡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는데, 첫 번째 곡은 “애국가”로서 2007년 10월 2일 농인과 청인으로 구성된 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번역하여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가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 발표회」를 통해 표준안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번역은 표준화 작업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번역된 작품을 보았을 때 한국어 가사에 대응하여 입 모양을 함께한 것으로 보아 농인들이 청인공동체와 함께 제창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분석은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가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2008)에 삽입된 애국가로 실시하였다. 두 번째 곡은 같은 애국가이지만 유튜브에서 수어찬양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는 농인이 수어로 번역한 것이다(이상현, 2022). 첫 번째 번역과 대조적으로 특수한 목적 없이 자유롭게 시도된 작품임을 주목한다. 세 번째 곡은 2022년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로 발표된 것으로 농인에 의하여 농인과 청인을 대상으로 만든 작품이다(지혜원, 2022). DJ DOC의 “삐걱삐걱”을 한국수어로 번역한 수어노래이다.

<Table 1> Analyzed Sign Songs

Title	Producer/Artist	Type	Length
Korean National Anthem-Version 1 (2007)	KSL Standardization Committee (Deaf and Hearing members)	Recorded Performance	3:23
Korean National Anthem-Version 2 (2022)	Lee, Sang-Hyun (Deaf)***	Recorded Performance	0:29
Squeak (2022)	Ji, Hye-Won (Deaf)	Recorded Performance	1:10

Source : KSL Standardization Committee (2008), Second video celebrating KSL Day - DJ DOC Squeak (by Ji, Hye-Won) - YouTube

### 2. 분석 방법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각국 수어 연구를 위해 수어 단어 단위로 분절하여 주석을

\*\*\* “애국가-버전2”를 수어노래로 번역하고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해 주신 이상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착할 수 있는 엘란(ELAN 6.3버전)을 이용하여 세 곡의 수어노래를 전사하였다. 세 곡의 수어노래의 특징에 따라 층렬의 차이를 두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어공간, 비수지표지, 우세손, 비우세손, 유지를 층렬로 하여 전사하였다. <Table 2>에서 층렬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애국가-버전1”은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경음악 층렬을 두었으나 “애국가-버전2”와 “삐걱삐걱”은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경음악 층렬을 두지 않았다. 한국어 주석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미 중심으로 하였다.

<Table 2> Transcription Tiers

#	Tier	Content
1	Background Music	Transcribe when a sign song performance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background music.
2	Sign Space	Transcribe when the sign space is used to convey meanings. (left, right, above, below)
3	Non-manual markings	Transcribe when markings are made non-manually by eye brows, eyes, mouth etc.
4	Dominant hand	Transcribe when the dominant hand is used to express lexical items.
5	Non-dominant hand	Transcribe when the non-dominant hand is used to express lexical items.
6	Spreading	Transcribe when the same non-dominant hand is maintained from the previous word to the next word.

### Ⅲ. 결과 및 논의

세 곡의 수어노래는 특수 목적을 갖고 농인과 청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번역된 “애국가-버전1”과 그러한 특수 목적이 없이 농인에 의하여 번역된 두 곡 “애국가-버전2”와 “삐걱삐걱”으로 대조된다. 이 두 그룹은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 한국수어에의 충실성, 수어공간 사용, 유지 현상, 단어 변형, 비유적 언어와 같은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대조된다. 두 그룹 간 대조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1.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

수어노래가 청각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의미하는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는 세 곡의 수어노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애국가-버전1”은 전국적으로 수어 어휘가 제각기 다르므로 이를 통일하려는 한국수어 표준화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애국가 수어노래의 표준화는 다양한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할 때 통일되게 부를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애국가 전주가 흐르는 11초 가량 수어자는 두 손을 아래로 내려 차렷 자세를 취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였다. 전주가 끝나고 애국가가 시작되자 수어노래를 시작하였고 청각 음악의 리듬과 속도에 맞춰 수어노래를 하였다. 한국어 가사에 대응하여 입 모양도 함께 따라갔다. 이와 달리, “애국가-버전2”와 “삐걱삐걱”은 한국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국어 가사에 맞춘 입 모양도 동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리듬감이나 속도감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일반 수어 담화와 비교했을 때 두 작품에는 보다 강조된 리듬감과 속도감이 분명히 관찰되었는데 그 리듬과 속도는 청각 음악이 아닌 온전히 수어노래 자체의 예술적 표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 2. 한국수어에의 충실성

수어노래가 한국수어에 충실하다는 것은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가 아닌 자연 언어인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의 성실한 사용을 말한다.\*\*\*\* 충실한 한국수어의 사용은 곧 농인들을 향한 보다 명확한 소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애국가-버전1”은 한국어 가사에 맞게 한국수어 어휘를 일대일로 대응시켰고 애국가를 부르듯이 입 모양도 동시에 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 한국어 가사와 달랐던 수어노래의 소절은 ‘동해물’과 ‘강산’ 두 군데뿐이었다. 각각 [동][바다]와 [흐르다][산]으로 표현하여 [물]을 생략하였다. ‘동해물’이라는 표현 속에 이미 물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물]을 생략하였다(한국표준수화제정 규범 추진위원회, 2008). 한국어의 접속조사, 연결어미, 조사,

\*\*\*\*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장진석, 2006). 1) 농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자연성, 표현상의 상징성, 축약성, 2) 수화의 표현 동작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성, 3) 농인들의 청각이 아닌 시각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 시각성, 간결성, 4) 살아 움직이는 손동작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classfier) 표현, 5)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 형태나 크기 등을 손의 움직임이나 위치, 형태나 크기에 옮겨 놓는 오노마토펜페(onomatopoeia), 6) 음성언어에서와 같은 리듬, 7) 수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롤 슈프트(role shift).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조되는 국어대응식 수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장진석, 2006). 1) 형성과정 및 표현상의 비(非)자연성과 비(非)축약성, 2) 수화표현 상의 문제점에서의 ① 공간 활용상의 반(反)복합성 및 폐쇄성 ② 공간 표현 기능상의 제한성·경직성, 3) 의미 표현상의 반(反)시각성과 부적절성에서의 ① 언어기능표현 상의 비(非)문법성 ② 언어기능 표현상의 반(反)시각성 ③ 의미 표현상의 부적절성, 4) 유사 표현의 제한성에서의 ① 유사 표현의 제한성 ② 오노마토펜페 면에서의 비운율성 수화 리듬상의 경직성 ④ 롤 슈프트면에서의 부적절한 역할 표현 등이 있다. (원문 그대로 ‘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보조동사인 ‘-과’, ‘-도록’, ‘-으로’, ‘주다’ 를 한국수어 어휘 [-과(=또)], [-도록(=까지)], [-으로(=가지다)], [주다]로 표현하였다. 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추진위원회에서 한국어의 조사를 표시하기 위해 표준화된 수화 기호를 사용한 기본 원칙과 같다.

<Table 3> “Korean National Anthem-Version 1” Sign Song Lyrics

Korean Lyrics	KSL Sign Song Lyrics
East.Sea-and Baekdu.Mount-Nom dried.up-and worn.out-till	[East Sea] [And] [Mount Baekdu] [Dried] [Worn++] [Till]
God-Nom protect-do-thus our.country long.live	[God] [Protect] [Give] [We] [Country] [Long Live]
Rose.of.Sharon 3000.li glorious.land	[Rose of Sharon] [3000] [Li] [Glorious] [River] [Mountain Peak]
Korean people Korean-as long keep-Hort	[Korean] [Person] [Korean] [Country] [As] [Long] [Protect] [Pass on]

Source : Korean Standardization Committee (2008)

<Table 4>가 대조적으로 보이듯 “애국가-버전2” 는 한국어 가사에 일대일 대응하여 수어 어휘를 나열하지 않고 수어 고유의 언어적 특징을 살린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소절은 바다에 해가 뜨고 물결이 치는 것으로 표현하여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의 [동해](동(東)+바다)와는 순서가 거꾸로 이지만 바다에 해가 뜨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은 한국어 어순에 따른 [백두산][마르다][닳다]가 아니라 백두산에 눈과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살려 표현하였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소절의 경우 [하나님][보호하다] 어순과 수어자의 시선을 통한 주동문 실현이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애국가-버전1” 에서는 [하나님][보호하다][주다]로서 [주다]는 한국어 문형에 따른 것이다.

<Table 4> “Korean National Anthem-Version 2” Sign Song Lyrics

Korean Lyrics	KSL Sign Song Lyrics
East.Sea-and Baekdu.Mount-Nom dried.up-and worn.out-till	[Sea] [Sun Rise] [Waves Break] [Mount Baekdu] [Waves Break] [Mountain Peak] [Snow Fall] [Wind Blow] [Mountain Peak]
God-Nom protect-do-thus our.country long.live	[God] [Korean Peninsula] [Protect] [Forever]
Rose.of.Sharon 3000.li glorious.land	[Korean Peninsula] [Flowers bloom in Korean Peninsula] [Mountain Peak]
Korean people Korean-as long keep-Hort	[Korean] [Community] [Proud] [Korean] [Descendants] [Protect] [Pass on]

Source : Lee, S. H. (2022)



“삐걱삐걱” 또한 한국수어에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 번역자는 한국어 노래 가사를 직역하지 않고 농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표현하였다. 또한 노래라는 장르의 특징을 살려 전달력이 높은 제스처의 활용도 빈번하였다.

‘코미디도 아닌 것이 정말 웃겨요’ 라는 한국어 표현은 뉴스를 보다가 뉴스 내용이 마땅치 않아 하는 시청자의 반응을 고개를 가로짓는 제스처로 표현하였다.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도 정치인들이 쇼를 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시청자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만약 이 두 표현을 수지 한국어로 번역했다면 농인들에게는 한국어 가사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든지 아니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 정말 잘해요’ 에서는 [나][대통령][출마하다]로 표현하여 노래 속 화자를 대통령으로 역할전환하여 대통령이 공약을 말하듯이 직접적인 표현 형식을 취하였다. 여기서 [나]는 수어자나 노래 속 화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 수어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공약을 제시하여 의미 전달력을 높였다. 경제 회복뿐 아니라 『한국수어언어법』 제정과 같은 농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소재로 삼아 수어노래의 주된 관중인 농인들에게 친숙한 주제로 다가가고 있다. 이 소절에서도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대통령 당선을 양손에 V자를 취하여 승리를 표시하는 엠블럼을 사용하였다. 기존 어휘를 사용할 때보다 제스처 사용은 간결하고 의미 전달이 분명하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 뿐이죠’ 역시 수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면 농인들에게 의미 전달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기고 이를 쏘시고 배를 두드리는 제스처로 표현하였다. 뒤에서 제시되지만 배부름을 통해 부의 부당한 축적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을 잘 보여준다. 수어자는 정치인에서 시청자의 역할로 바뀐다.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쳐다보며 말뿐이라고 말한다. 이 소절에서 [입][대포]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대포]는 보통 대화에서 한 손으로 표현하지만 노래장르에 맞춰 양손으로 표현되었다.

&lt;Table 5&gt; “Squeak” Sign Song Lyrics

Korean Lyrics	KSL Sign Song Lyrics
everyday night 9 o' clock-Nom become I-Top News-Acc watch-Dec	[Time] [9 O' clok] [Turn On TV With A Remote Control] [Watch TV] [While Stroking (A Dog) Watch TV]
comedy-even not thing-Nom really funny-Dec	{Upper Body Leans Forward} {Head Shakes Sideways}
politics-do mister-Pl daily fight-Dec	[Sit In A Circle] [Get Up Simultaneously] [Shout Out Loud With Exposed Teeth++] [Fight] [흔동]
one two fight-then after.all a.mess become-Dec	[Stroke (A Dog)] {Head Shakes Sideways}
my dog name hammer-be-Dec at.that.time hammar face look embarrassing-become-Dec	[Dog] {While Stroking A Dog Make A Sad Face}
who well do I do.not.know-dec	[IXa] [Best] [IXb] [Worst] [Two Hands Shake Sideways++]
my eyes-to-Top all the.same look-Dec	[Best/Worst] [Two Hands Shake]
like.that fight-and again reconcile-Acc do-Dec	[IXa] [IXb] [Fight] [Give Bribe] [Fight] [Give Bride] [Fight] [Hands Hold Together]
completely us-Acc possess-and play-Dec	{Look Here and There} {Nod} {Stop With Two Hands} [Drama] [#Show] {Stop With Two Hands}
again keep-even unable promise really do.well-Dec	[IXs] [President] [Run For Office] [Sign Language] [Institute] [Pass] [Help] [Economy] [Recover] [Develop] [Help] [Pledge] [IXs] {Make a V With Two Hands and Shake} [Vow] [Forget (using two hands)]
time-Nom pass-and see only-word-be-Dec	[Money] [Count Money] [Inciting Gesture] [Put In Pocket] [Pick Teeth] [Knock On The Stomach] {Upper Body Leaning Forward And See} [Mouth] [Cannon (using two hands)] {Head Shakes Sideways}
someone change-give-Dec do-and wait-then should.not.be-Dec	[IXs.pl (lower space)] [IX (upper space)] [Change (upper space)] [Open Mouth] [Two Hands Shake]
now change do we-Nom change do-Dec	[Roll Up Both Arms] [Revolution] [Shoot Guns] [Need]
weak people everyday suffer-only live-Dec	[IXs.pl (lower space)] [Incompetent] [Plough] [Dry Sweat] [Fall(lower space)]
so squeaky world-Top run-Dec	[Fight (left space)] [Confusion (left space)] [World runs slowly (neutral space)]

Source : Second video celebrating KSL Day - DJ DOC Squeak (by Ji, Hye-Won) - YouTube

여기까지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와 한국수어에의 충실성의 관점으로 두 그룹의 수어노래를 대조하였다. 특수한 외부적 목적 없이 농인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만들어진 작품은 청각 음악으로부터 자유롭고 오히려 수어노래 자체의 내적인 리듬과 속도에 충실하였으며 수지 한국어가 아닌 자연언어로서의 한국수어 사용에 충실하였다.

이 두 그룹의 작품의 추가적인 대조 점은 보다 구체적인 한국수어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 수어공간 및 유지의 사용 그리고 단어 변형과 같은 언어적 특징과 비유적 언어와 같은 예술적 언어의 사용이다. 물론 수어노래의 예술적 특징은 언어적 특징을 떠나서는 발현될 수 없다.

### 3. 수어공간 사용

세 곡의 수어노래 모두에서 수어공간을 사용하였으나 사용 빈도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애국가-버전1”은 마지막 소절 ‘보전하세’에서만 수어공간 사용이 관찰되었다. <Figure 1>은 [전하다]를 수어자의 어깨 위에서 중립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시간선(time line)\*\*\*\*\*을 활용한 것이다. 시간선에서 [어제], [내일] 등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



<Figure 1> “Korean National Anthem-Version 1” : Use of Time Line

Source : KSL Standardization Committee (2008)

대조적으로 “애국가-버전2”에서는 수어공간을 매우 유연하게 사용하였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소절에서 수어자는 수어공간을 활용한 역할전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 한반도를 보살핀다고 표현하여 행위의 주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반도]는 보통 수어공간의 수직면에서 산출하지만 수평면 위에 산출하였다(<Figure 2> 첫 번째). 수어자의 시선도 한반도를 내려다보듯이 수평면을 응시하였다. 이후 잠시 정면(수신자)을 응시했다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표현한 [한반도][한반도에 꽃이 피다]에서 다시 수평면을 응시하였다.

\*\*\*\*\* 수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선으로 수어 화자의 몸을 중심으로 몸 가까운 위치는 현재를, 몸의 앞쪽은 미래를, 뒤쪽은 과거를 나타낸다(원성욱 외, 2021).

‘화려강산’은 [화려하다][강][산]으로 일대일 대응으로 직역하지 않고 <Figure 2> (두 번째)에서 보듯 [꽃]을 한반도를 뜻하는 수평면 위에서 몸 가까운 위치에서 몸과 멀어지는 위치로 일렬로 이어지게 연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반도에 핀 꽃들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단어 변형의 특징이기도 하다. 꽃들을 표현했던 손은 바로 [산봉우리]로 이어짐으로써 물이 흐르듯이 부드럽게 소절을 마쳤다. 한반도에 핀 무궁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수어공간 수평면에서 [꽃]의 변형을 취해 표현한 것이다.



**<Figure 2> “Korean National Anthem-Version 2” :  
Use of Horizontal Plane of Sign Space**

Source : Lee, S. H. (2022)

“삐걱삐걱”에서도 수어공간 사용이 두드러진다. ‘누가 잘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모두 다 똑같아 보여요’에서 정치의 양쪽 진영을 표현하기 위해 수어공간을 둘로 분할한다. 수어공간의 왼쪽과 오른쪽을 검지로 차례로 지시함으로써 양쪽 진영이 두 수어공간과 연결된다(<Figure 3> 첫 번째). ‘잘한다 못한다’ 또한 두 공간에서 산출되어 간략한 표현 효과를 가져다준다.

‘잘한다 못한다’에 해당하는 어휘화된 단어가 있음에도 제스처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엄지를 세워 ‘최고’와 엄지를 거꾸로 하여 ‘최악’을 표현하였다(<Figure 3> 두 번째, 세 번째). 제스처 사용은 리듬감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수어공간은 다음 소절에서도 사용된다. ‘그렇게 싸우고 또 화해를 해요’에서는 수어공간의 왼쪽과 오른쪽을 차례로 지시한 후 [싸우다] [뇌물을 주다] [싸우다] [뇌물을 주다] [싸우다] [손을 맞잡다] 동사를 각각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에서 시작하고 끝낸다. [싸우다], [뇌물을 주다], [손을 맞잡다] 동사는 양손이 관여하여 두 공간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수어공간 양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손 단어를 선택한 점은 탁월하다. 또한 두 수어공간에서 형태가 유사한 동사들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이 생겼다.



<Figure 3> “Squeak” : Horizontal Division of Sign Space

Source : Second video celebrating KSL Day - DJ DOC Squeak (by Ji, Hye-Won) - YouTube

‘누가 바뀌줘요 하며 기다리면 안돼요’에서는 오른쪽 아래 공간에 [우리]를 설정하고 [지시]와 [바꾸다]를 왼쪽 위 공간에 설정하여 좌우 공간과 상하 공간을 분리하였다(<Figure 4> 첫 번째, 두 번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는 동작으로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자연스럽게 수어자의 상체는 정치인을 위한 장소로 설정한 왼쪽 위쪽을 향한다.

‘그렇게 삐걱대며 세상은 돌아가요’에서 수어공간을 이용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왼쪽 위 공간에 위치한다(<Figure 4> 세 번째). 삐걱삐걱 돌아가는 세상은 기계가 삐걱대듯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Figure 4> “Squeak” : Horizontal and Vertical Division of Sign Space

Second video celebrating KSL Day - DJ DOC Squeak (by Ji, Hye-Won) - YouTube

#### 4. 유지 현상

“애국가-버전2”와 “삐걱삐걱”에는 “애국가-버전1”과 대조적으로 형태적 특징으로 유지 현상이 관찰되었다. 유지는 우세손이 새로운 어휘 발화를 위하여 변화할 때 비우세손이 기존 어휘 형태로 지속되는 현상이다.

“애국가-버전2”에서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소절은 [물결이 치다], [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다]로 표현하여 자연에 의해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 모습을 구체적

으로 묘사하였다. 비우세손은 [산]을 표현한 상태로 유지하고 우세손은 [물결이 치다], [눈이 내리다], [바람이 불다]를 연이어 표현하였다. 양손을 사용함으로써 백두산이 변화무쌍한 자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시각적으로 현저하게 표현되었다(〈Figure 5〉).



〈Figure 5〉 “Korean National Anthem – Version 2” : Spreading

Source : Lee, S. H. (2022)

## 5. 단어 변형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에서 [능력]의 동작을 반대로 바꾸었다. [능력]은 한쪽 팔 위에 반원을 그리는 동작인데(〈Figure 6〉 첫 번째), 반대로 하여 팔 밑에 반원을 그렸다(〈Figure 6〉 두 번째). 여기서 반원은 팔의 뭉친 근육을 표현한 것으로 원래 단어의 변형을 취해 반대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Figure 6〉 “Squeak” : Change in the Lexical Form

Source : (LEFT) KSL Standardization Committee (2008), (RIGHT) Second video celebrating KSL Day - DJ DOC Squeak (by Ji, Hye-Won) - YouTube

## 6. 비유적 언어

은유와 환유와 같은 비유적 언어의 사용이 관찰되었다. 특별히 “삐걱삐걱”은 사회 풍자적인 원곡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비유적 언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정치하는 아저씨들 맨날 싸워요’에서 [정치인]이라는 어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9시 뉴스라는 배경과 원형으로 둘러앉아 있다가 일제히 일어서서 싸운다는 분류사 표현에서 정치인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싸움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마치 동물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Figure 7> 첫 번째).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에서는 곡괭이질을 하며 땀을 닦는 모습으로 힘이 없는 노동자를 환유적으로 나타내었다(<Figure 7> 두 번째).

‘이젠 바뀌어야 해,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에서 수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양팔을 걷어 올린다], [혁명], [총을 쏘다]를 연이어 표현하여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루어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총을 쏘다]는 말 그대로 총을 쏘다는 무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는 방법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Figure 7> 세 번째).



<Figure 7> “Squeak” : Use of Metaphor

Source : Second video celebrating KSL Day - DJ DOC Squeak (by Ji, Hye-Won) - YouTube

#### IV. 결론 및 제언

1980년대 한국수어 학습의 열기는 수어교실 및 동아리 형태의 학습장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철관, 2007). 각 강좌의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의 수어노래 발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그 외에도 대학 동아리의 공연, 교회에서의 수어찬양 등은 농인과 청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였고 수어 학습 동기를 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수어노래는 청각 음악이 관여하므로 수어문학에서 배제되었다. 더욱이 수지 한국어로 표현된 무의미한 행위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청각 중심의 음악관에서 시선을 돌려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

운 농 고유의 음악 창조라는 측면에서 수어노래의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는 Mahler(2015)가 제안한 수어노래의 다양한 형태를 전제하여 한국수어 노래로 번역된 두 종류의 수어노래를 비교·분석하였다. 한 종류는 표준화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청인과 농인이 공동으로 번역한 작품이었으며 다른 한 종류는 그러한 특수한 목적 없이 농인에 의하여 자유롭게 번역된 보다 순수한 예술 작품이었다. 이 두 종류의 작품을 대조하였을 때 청각 음악에 대한 충성도, 한국수어에의 충실성, 수어공간, 유지, 단어 변형 사용 그리고 비유적 언어라는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확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농인에 의해 기존 곡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로서의 수어노래에는 농 고유의 음악적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 고유의 음악적 특성은 청각 음악으로부터의 자유로움에서 발견되었다. 배경음악 없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어담화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은 리듬과 속도감이 보였으며 그것은 수어노래 고유의 예술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농 고유의 음악적 특성은 한국수어에의 충실성에서 관찰되었다. 한국어 가사와의 일대일 대응을 위하여 수어 어휘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은 대신 자연스럽고 농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포함한 한국수어로의 번역이 돋보였다.

셋째, 농 고유의 음악적 특성은 수어의 특성인 수어공간의 적극적 사용에서 발견되었다. 수어공간은 실세계 정보를 수어공간에 사상하는 지형적인 사용과 일치동사와 [지시]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위한 통사적 사용으로 나뉜다(남기현, 2007). “애국가-버전2”에서는 지형적 수어공간 사용이 두드러졌다. [한반도]는 대부분 수직면에서 산출하지만 역할전환이 일어나면서 수평면을 사용하게 되고 다음 소절에서도 수평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한반도에 활짝 핀 무궁화를 수평면 위에 일렬로 반복하여 표현하였다. 문법적 기능을 위한 통사적 공간의 사용은 “빼겨빼겨”에서 관찰되었다. [지시]를 통해 정치권의 양측을 수어공간 양쪽에 설정하고 동사가 두 공간을 이동한다. 힘이 없는 약자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강자를 위해서 수어공간을 하단과 상단으로 분할한다. 상층 공간은 권력층과 연결되고 하층 공간은 비-권력층과 연결된다는 공간의 은유적 의미를 보여주었다.

넷째, 농 고유의 음악적 특성은 유지 현상을 통해 발현되었다. 형태적 측면에서 우세손이 새로운 어휘 발화를 위하여 변화할 때 비우세손은 기존 어휘 형태를 지속하는 유지가 사용되었다.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소절에서 유지되는 손은 백두산을 나타낸다. 바람, 비, 눈 등 세찬 자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뚝 서 있는 백두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섯째, 수어의 형태적 특징인 단어 변형이 나타났다. ‘힘없는 사람은 맨날 당하



고만 살아요’ 소설에서 [능력]을 팔뚝 위가 아닌 팔뚝 아래로 수위를 변경함으로써 권력에서 권력이 없다는 정반대의 의미를 군더더기 없이 경제성 있게 표현하였다. 시어의 함축성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끝으로, 은유와 환유와 같은 비유적 언어의 사용이 관찰되었다. “삐걱삐걱”은 기존 한국어 노래를 한국수어로 번역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곡을 창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건청 사회의 정치 모습의 풍자를 한국수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정보를 드러냄으로써 농사회의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창조하였다. 이때 은유와 환유를 이용하여 시적이고 풍자적인 수어노래를 보여주었다.

두 종류의 번역된 수어노래의 비교를 통하여 농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형태의 수어노래는 농인의 순수한 예술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창조적 예술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수어문학과 함께 농 정체성 증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수어의 예술적 특징과 농 고유의 음악성을 표현하는 수어노래 작품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농사회의 정체성을 위한 주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농학생 대상 음악 교과 지도에서 단순히 청각 음악을 수어로 옮기는 번역된 작품 유형을 넘어서 순수하게 한국수어로 만들어지는 창작곡으로의 수어노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음악 교과 지도에서 ‘노래 부르기’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수어노래였고, 교사들은 농학생이 가장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수어라고 생각하였다(나희정, 정은희, 2011). 따라서 수어노래의 예술적, 언어적 특징의 탐색은 농인들의 문학·예술 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특별히 농학교 음악 커리큘럼은 청각적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어 농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인정하고 함양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Bahan, Ben. (2006). *Face-to-Face Tradition in the American Deaf Community: Dynamics of the Teller, the Tale, and the Audience*. In *Signing the Body Poetic: Essays on American Sign Language Literature*, edited by H-Dirksen L. Bauman, Jennifer L. Nelson, and Heidi M. Rose, 21-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BN News ([https://youtu.be/v2XDSEdr\\_f4](https://youtu.be/v2XDSEdr_f4))  
[DBN 뉴스 ([https://youtu.be/v2XDSEdr\\_f4](https://youtu.be/v2XDSEdr_f4))]
- Chang, J. S. (2006). Analyzing the Problems of Sign Language Following Korean Language System According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ign Langua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2), 107-125.

- [장진석 (2006).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73-206.]
- Crasbon, O. (2006). A linguistic analysis of the use of the two hands in sign language poetry *Linguistics in the Netherlands*, 65-77.
- DJ DOC Squeak (Sign Song: Ji, H. W.) Second Video Clip, Sign Language Day Celebration (<https://youtu.be/xOY6CJtYHx0>)
- [DJ DOC 삐걱삐걱 (수어노래 : 지혜원 ) 수어의 날 기념 두 번째 영상 (<https://youtu.be/xOY6CJtYHx0>)]
- Garland-Thomson, R. (2012). The Case for Conserving Disability. *Bioethical Inquiry* 9. 339-355.
- Kim, Y. M., Kwak, J. R., Song, M. Y., Byun, K. S. (2019). *Korean Sign Language Teaches' Curriculum. Deaf Culture and Deaf Society*.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김유미, 광정란, 송미연, 변강석 (2019).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국립국어원.]
- Kim, C. K. (2007). *Sign Language Teaching*. unpublished lecture no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Nazarene University.
- [김칠관 (2007). **수화지도법**. 나사렛대학교재활복지대학원 국제수화통역학과. 미간행강의자료.]
-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korean.go.kr](http://korean.go.kr)).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korean.go.kr](http://korean.go.kr))).]
- KSL Standardization Committee (2008). *Korean National Anthem · Pledge to the flag · Hanguil Day Song in Korean Sign Languag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8).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글날 노래**.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Mahler, A. (2015). Musical Expression among Deaf and Hearing Song Signers. edited by, Blake Howe, Stephanie Jensen-Moulton, Neil William Lerner, Joseph Nathan Straus, pp. 73-91. *The Oxford Handbook of Music and Disability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 Na, H. J., & Jeong, E. H. (2011). The Actual States of the Music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sfor the Hearing Impaired and Music Activity of the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1), 173-206.
- [나희정, 정은희 (201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73-206.]
- Nam, K. H. (2007). Syntactic Function of the Sign Space in Korean Sign Languag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8(3), 45-68.
- [남기현 (2007).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45-68.]
- Sutton-Spence, Rachel and Ronice Muller de Quadros (2005). Sign Language poetry and Deaf identity. *Sign Language and Linguistics* 8:177-212.
- Yonaiyama, A., Kimura, H., Izida, Y., Torikoe, T., & Tanata, S. (2002). *Understanding the Deaf culture for the purpose of changing the social awareness of sign languages*.

Institute of Deaf Society Information. (translated by Lee, W. I., M. Y. Kim, S. H. Kim, J. H. Kang (2002)).

[요나이야마 아키히로, 기무라 하루미, 이찌다 야스히로, 도리고에 다카시, 다나다 시게루 (2002). **수화의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이와이, 김만영, 김상화, 강제희 편역, 2002).]

Won, S. O., Kim, Y. M., Nam, K. H., & Kim, S. Y. (2021). *Korean Sign Language Grammar*.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원성옥, 김유미, 남기현, 김성완 (2021). **한국수어 문법**. 국립국어원.]

<국문 초록>

## 한국 수어노래의 예술적, 언어적 특징 분석

남기현·조준모

**[목적]**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가 예술 창작에 활용될 때 독특한 언어적 특징들이 발견된다. 본고는 한국 수어노래에 발견된 예술적, 언어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방법]** 수어노래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각 형태마다 독립적인 언어적 특징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개의 번역된 수어노래를 대조 분석하였다. 이 세 개의 수어노래는 번역자와 번역 동기에 의하여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종류는 청인과 농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하여 번역된 애국가이며 이 번역은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청인과 농인이 함께 부르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종류는 농인에 의하여 번역된 작품이며 예술적 활동이라는 것 이외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작품의 대조 분석을 위하여 엘란(ELAN 6.3버전)을 사용하여 전사하였다. **[결과]** 대조 분석 결과 두 종류의 수어노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수어노래에서 관찰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 음악에 의존하지 않고 수어 자체의 리듬감을 살려 표현하였다. 둘째, 한국수어에의 충실성을 높여 농인 독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셋째, 수어공간 활용도가 높았고, 더 나아가, 상하 공간과 권력층/비-권력층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의 은유적 기능을 보여주었다. 넷째, 유지, 단어 변형과 같은 수어의 형태적 특징이 두드러졌다. 다섯째, 은유와 환유와 같은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시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을 담은 수어노래를 보여주었다. **[결론]** 이 결과는 수어노래의 음악적 본질을 함의한다. 수어노래는 청각 음악의 번역본 이상의 음악적 특성을 내재하며 나아가 음악은 본질적으로 청각적 경험을 뛰어넘는 것임을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인들의 예술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수어노래는 수어문학의 다양한 작품과 더불어 수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나아가 본고의 결과는 농 고유의 음악적 특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농인 음악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수어노래, 비청각적 음악, 언어적 특성, 농 정체성, 한국수어

논문 접수(Received): 2022. 08.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2. 08.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2. 08. 30.